

# 가자 휴전 ‘흔들’…이스라엘 공습 일시 재개·주민구호 중단

‘하마스가 협정 위반’ 주장…무기고 등 공격 후 휴전 이행 재개  
하루 만에 가자서 최소 33명 사망…하마스 “전쟁 재개하려 날조”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휴전 협정 위반을 비난하며 가자지구 공습을 한동안 재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뤄진 휴전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 넣었다.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오늘 오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노골적인 휴전 협정 위반에 대응해 가자지구 남부의 하마스 테러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테러에 활용되는 터널, 무기고 등을 겨냥해 공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십건의 공격을 수행한 뒤 이스라엘군은 이날 밤 휴전 협정 이행을 다시 시작한다며 “협정을 계속 유지하고, 어떠한 위반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1단계 휴전이 지난 10일 발효된 지 9일 만에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날이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스라엘 언론은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라파를 공격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후 이스라엘군은 전투기와 포병을 동원해 라파에서 공습을 수행했다고 확인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합의에 따라 이 지역에서 테러 인프라를 해체하던 중 ‘팔레스타인 극단주의자’들의 대전차 미사일 및 총기 공격을 받았으며, ‘중대한 휴전 협정 위반’에 대응해 이번 공습에 나섰다 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남부 전투에서 자국군 2명이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휴전 발효 이후 이스라엘 측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하마스가 옐로 라인(협정에 따른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내 철수선) 안에 있던 우리 군에 최소 3차례 발포한 것에 대응했다며 “추가로 공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휴전 협정 위반 이후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안보 당국자들과 회의한 뒤 “가자지구의 테러 목표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성명에서 밝혔다.

카츠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하마스는 휴전을 위반할 때마다, 공격할 때마다 막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하마스가 변화하고 휴전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오판은 예상대로 우리 안보에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완전히, 최대 전력으로 적대행동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휴전 협정 위반을 이유로 가자로 향하는 인도적 지원 이송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한다고 당국자가 말했다. 전날에는 가자지구로 드나드는 주 관문인 이집트 접경 라파 검문소도 추후 공지 시까지 계속 폐쇄한다고 밝혔다.

미국 매체 약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1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부레이 난민 캠프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인해 무너진 건물 사일로 연기가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이번 가자 공습을 수행하기 전에 미 정부에 미리 알렸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전날 가자 주민들을 상대로 한 하마스의 휴전 위반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신뢰할만한 보고가 있다면서 공격이 이뤄지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하마스는 이러한 비난을 전면 부인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이러한 허위 비난은 이스라엘의 기반적인 선전과 완전히 일치한다”며 “이스라엘은 살인, 납치, 구호 트럭 약탈, 민간인 대상 강도를 수행하는 범죄단을 조직하고 무장시키며 자금을 지원했다”고 비난의 화살을 이스라엘에 돌렸다.

나아가 이스라엘이 전쟁을 재개하려고 구실을 만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마스 고위급 일원인 이자트 알리시크는 텔레그램에서 하마스가 휴전 협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범죄 정당화를 위해 근거 없는 맥락으로 날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은 성명에서 “우리는 가자지구 전 지역에 걸친 휴전을 포함해 합의된 모든 것을 이행한다는 완전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점령군’이 통제하는 라파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충돌은 전혀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 전역에서 최소 3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EFE 통신은 가자지구 의료 소식통을 인용해 남

부 라파에서 충돌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이 가자 전체로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매체 N 12 방송은 이스라엘 공군이 가자 내 약 20개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와이넷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에 억류된 인질들의 안전을 고려해 그간 공격하지 않았던 일부 난민 캠프들도 공격했다고 전했다.

알자지라는 가자지구 내 의료 소식통을 인용해 휴전 발효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51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인질 및 사망자 시신 반환을 두고도 갈등을 겪고 있다. 하마스는 생존 인질 20명을 모두 돌려보냈지만 사망한 인질 시신 수색에 어려움이 있다며 송환 완료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하마스는 전날 밤 인질 시신 2구를 추가로 송환했다. 이들의 신원은 이스라엘인 로넨 영겔, 태국인 농장 노동자 손타야 오크카라스리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돌려준 인질 시신은 총 28구 중 12구가 됐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계한 시신 중 1구는 인질의 유해가 아니라고 밝혔다.

알카삼 여단은 이날 이스라엘 인질 시신 1구를 수습했으며, 가능하다면 이날 중으로 13번째 인질 시신을 인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이날 이집트 중재자들과 회의하기 위해 대표단이 카이로에 도착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이스라엘 칸 라디오 방송은 가자 휴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20일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 루브르 박물관이 털렸다… ‘단 7분’ 사이 사라진 보석들

4인조 강도단 사다리차 이용…나폴레옹 보석 8점 도난

지난 19일(현지시간) 오전 프랑스 파리의 관광 명소 루브르 박물관에 4인조 괴한들이 사다리차를 타고 침입해 보석류를 훔쳐 달아났다.

AFP·AP 통신과 BBC 방송에 따르면 범인들은 이날 오전 개장 시간 30분 뒤인 9시 30분께 박물관에 침입해 프랑스 왕실 보석류가 전시된 ‘아폴론 갤러리’에서 보석류를 훔쳐 달아났다.

파리 검찰은 BFM TV에 보석을 훔친 4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보석류 9점을 훔쳐냈고 그중에 1점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회수됐다고 말했다.

프랑스 언론은 범인들이 떨어뜨리고 간 보석은 나폴레옹 3세 황제의 부인 외제니 황후의 왕관으로, 부서진 채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루브르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왕관은 다이아몬드 1천354개와 에메랄드 56개로 장식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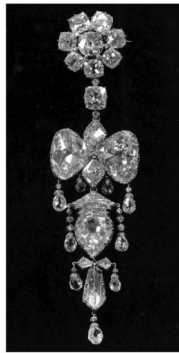
프랑스 문화부는 아폴론 갤러리에서 도난당한 보물 8점을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며, 나폴레옹 1세가 부인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에메랄드-다이아몬드 목걸이, 나폴

레옹 3세의 부인 외제니 황후의 왕관과 브로치, 18세기 마리 아멜리 왕비와 오르탕스 왕비와 관련된 사파이어 목걸이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베뤼오 검사장은 범인들이 센강 쪽 외벽에 사다리차를 대고 올라갔으며 범행 후에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달아났다고 전했다. 주요 외신도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다리차 박물관 2층에 걸쳐져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도했다.

범인들은 전동 절단기를 사용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들이 표적으로 삼은 아폴론 갤러리는 프랑스 왕실 보석류가 있는 화려한 전시실로 센강 쪽에 위치하며 가장 많은 관람객이 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는 불과 2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다만, 아폴론 갤러리에서 가장 유명한 전시품으로 꼽히는 140캐럿짜리 레장 다이아몬드는



◀나폴레옹 3세의 부인 외제니 황후의 브로치



▼왕관, 범행 현장 인근서 부서진 채로 발견·회수



◀나폴레옹 1세가 부인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에메랄드-다이아몬드 목걸이

◀18세기 마리 아멜리 왕비와 오르탕스 왕비와 관련된 사파이어 목걸이 등

자료: 구글 어스, BBC, 뉴욕타임스

도난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범행은 5분 안팎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은 파리 경찰청에서 불과 800m 떨어진 곳에서 개장 시간에 일어난 대담한 범행으로, 보안 구멍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짚었다.

박물관은 이날 하루 휴관했다. 사건이 박물관 개장 이후에 벌어지면서 이미 입장한 관람객들이 퇴장 조치되고, 이를 미처 알지 못한 관람객들이 계속 박물관 앞에 도착하면서 박물관 안팎에서 혼잡이 빚어졌다. /연합뉴스

## 트럼프 “콜롬비아 대통령은 불법 마약 수장”

마약퇴치 지원금 중단 선언…콜롬비아 대통령, 반박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마약 코카인 생산국 중 하나인 콜롬비아에 대해 미국의 마약밀매 퇴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불법 마약 수장으로서 대규모 돈 소규모 돈 콜롬비아 전역에서의 마약 생산을 강하게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약은 콜롬비아에서 가장 큰 산업이 됐으며, 미국에서 막대한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페트로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이런 지원금, 어떤 형태의 지원금이나 보조금도 더 이상 콜롬비아에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미국은 그동안 콜롬비아에 경제 개발, 마약 퇴치 등을 목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왔는데 이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지난 달 콜롬비아 일간 엘티엠포와 엘에스

팩타도르는 미국과 콜롬비아 정부 간 관련 동향을 보도하면서 코카인 생산·유통 차단과 마약 밀매가 르텔 억제 명목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조달했던 콜롬비아 당국의 예산이 5억 달러(7천억원 상당) 규모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그간 콜롬비아를 마약 퇴치 협력 파트너로 삼고, 필요한 관련 자금을 현지에 지원해 왔다. 다만, 페트로 대통령은 2022년 8월 콜롬비아 최초의 좌파 정부 출범 직후 마약 재배 농가를 겨냥한 강력한 군경 단속 대신 선진국 마약 수요를 줄이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했다.

페루와 함께 세계 주요 코카인 생산국으로 꼽히는 콜롬비아에서의 이런 접근법은 그러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게 국제 사회의 지적이다.

페트로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과 보좌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으며, 문제는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에게 있다”고 힐난하면서 “나는 마약 리더가 아니라, 21세기 콜롬비아 마약 밀매자들의 최대 적”이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DK** 디케이 주식회사

##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 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 든 순 간 을 더 건 강 하 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http://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